

공동자원과 마을의 관계 맺기 : 제주 하례리 마을과 효돈천을 중심으로1)

김 자 경

(제주대학교 공동자원과 지속가능사회 연구센터)

I. 서론

본 논문은 효돈천이라는 하천과 마을이 공동자원으로서 관계를 맺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생태마을 운영에 관한 사례 보고이다. 마을만들기 사업은 본래 지역개발사업이었으며, 식민지와 한국전쟁 이후 피폐화된 지역을 복원하기 위한 사업이었다. 1960~70년대를 거치면서 새마을운동으로 수렴되는가 싶었지만, 1990년대 지방자치제 실시 이후 도시와 농촌지역을 불문하고 마을만들기 사업의 이름으로 추진되고 있다.

제주의 하례1리에서 추진하고 있는 생태관광마을 사업 역시 그러하다. 다양한 중앙정부의 정책에 따라 사업비를 신청하고 있다. 그러나 하례1리는 공동자원론의 시각에서 보면 마을내 필요한 건물이나 세우는 마을만들기 사업과는 조금 다르다.

하례1리는 감귤로 유명한 남원읍에 속해 있는 마을이다. 연중 온화한 기후로 감귤재배의 최적지이며, 감귤로 인한 소득도 상당히 좋은 편이라 마을 사람들의 생활수준도 상당히 높다. 또한 마을공동체의 결속도 좋은 편이다. 이러한 마을에서 지역경제 활성화나 마을공동체 복원과 같이 마을만들기 사업을 추진할 과제는 거의 없다. 그러나 생태관광을 도입하고 효돈천 트레킹을 하기 전까지 하례1리는 제주도내에서도 잘 알려지지 않은 마을이었다. 하례1리의 마을 과제는 마을의 명성을 널리 알리는 것이었다.

효돈천은 한라산에서 발원하여 하례1리와 서귀포시 효돈동의 사이를 지나 바다에 이르는 하천(건천)이다. 과거 효돈천은 식수를 얻고, 물놀이 하며, 빨래를 했던 곳이다. 한때 비석을 캐며 생계를 이었던 장소이기도 하다. 그러나 감귤이라는 현금작물이 도입되면서 마을의 농사 형태가 바뀌고 수도와 전기가 들어오면서, 효돈천은 추억의 장소가 되었고 하례1리 마을사람들의 삶과 멀어져 갔다.

하례1리 마을사람들은 생태관광을 계기로 그동안 생활에서 멀어졌던 효돈천과 다시 관계를 맺었다. 즉 효돈천은 마을의 공동자원이 되었고, 효돈천을 중심으로 마을을 운영해나가기 시작하였다. 그 결과 하례1리는 생태관광마을로 명성이 알려지게 된 것이다. 이에 본 논문은 공동자원론의 시각에서 하례1리의 사례를 마을만들기 사업으로 인식하는 것이 아니라, 공동자원으로 마을 운영하기(마을 살림)라 재평가하고자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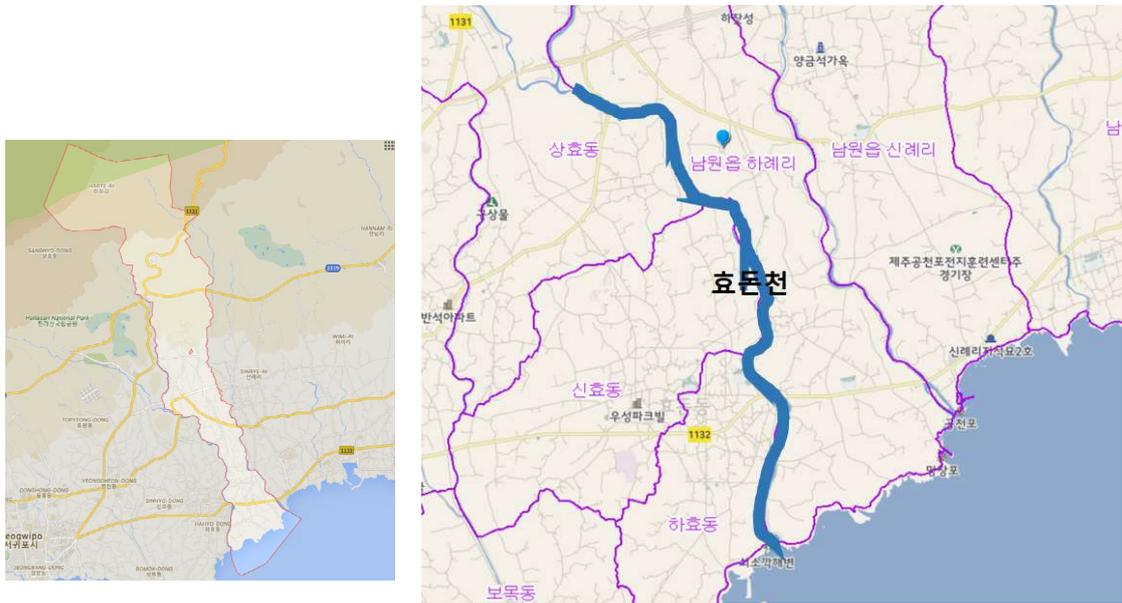
1) 이 글은 아직 완성되지 않았습니다. 인용은 삼가 주시기 바랍니다.

II. 효돈천의 기억을 품은 하례리 마을의 변동

1. 기록 속의 가마귀마루, 현재의 하례리 마을 현황

하례리는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남원읍의 서쪽에 위치한 마을이다. 서귀포시와 남원읍의 경계를 잇는 하천인 효돈천은 하례리의 왼쪽에 있다. 효돈천을 사이에 두고 서귀포시 상효동, 신호동, 하효동과 남원읍 하례2리, 하례2리 마을들이 접해있다(그림 1 참조).

<그림 1> 남원읍 하례리의 위치와 효돈천



출처: 구글지도와 제주특별자치도 공간포털(<http://gis.jeju.go.kr/bm/index.do#>)

하례리는 예전에는 가마귀마루(烏旨里), 호촌리(狐村里), 하례촌(下禮村)이라고 불렸으며, 고인돌 유적이 존재하고, 석기 유물들이 발견되어 선사시대부터 사람들이 살아 왔던 것으로 추정된다(양동욱 외, 2016. p.118: 하례마을회, 1999, p.28).

하례리에 대한 기록이 등장한 것은 고려 말 충렬왕 26년(1300년) 당시 탐라를 14개의 현으로 나누었고, 그 중 호촌현(狐村懸)이 되면서부터다(강순석외, 2001. p262). 고려시대부터 호촌현 지역이었으나, 조선시대에 들어와 영조 26년(1750년)에 이 동네에 사는 대표 7호가 모여 새로운 마을을 만들었고, 이 때 오지리(烏旨里, 제주어로 가마귀마루)가 되었다. 순조 13년(1813년) 오지리(烏旨里)를 오지리(梧旨里)로 변경하였다가, 고종12년(1875년)에 오지리가 하례촌(下禮村)으로 불렸다. 일제식민지 시대인 1914년 하례촌은 하례리(下禮里)로 개명되었다. 1965년 하례리는 하례1리와 하례2리로 행정분리 되어 오늘에 이르고 있다(하례마을회, 1999, p.50).

하례리 마을사람들은 생태관광마을을 추진할 때도 1리와 2리를 나누지 않고 하례리생태

관광마을협의체를 구성하여 추진했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마을명을 하례리로 부르코자 한다.²⁾

<표 1> 하례리 마을 인구 현황

	인구합	남	여	세대수
하례1리	1,133	569	564	495
하례2리	542	292	250	230

출처: 하례1리는 리사무소 내부자료(2018년 기준).

하례2리는 제주도(<http://www.jeju.go.kr/vill/harye2/intro/about.htm>)자료.

하례리의 인구 현황은 <표 1>과 같다. 인구구성에 특이한 점은 하례 1리는 외지인 비율이 10% 정도로 매우 적은 편이며, 하례 2리는 절반 정도가 외지인이라고 한다. 과거 하례1리에는 18개의 자연마을이 있었으며, 당시 마을 인구는 1,800여명까지 증가했던 시기였다. 현재는 마을 인구가 감소하여 자연마을을 12개의 반으로 구성하였다. 하례1리는 남원읍(17개리로 구성)에서 6번째로 큰 마을이다. 한편 2018년 기준 마을 내 유권자 수는 980명이다.³⁾

<그림 2>는 하례1리 마을의 조직 현황을 보여주는 것이다. 이것을 보면 하례1리 마을의 독특한 의사결정구조와 함께 마을 임원을 어떻게 길러내는지 알 수 있다. 우선 마을의 의사결정구조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제주의 마을은 행정단위인 리 아래에 여러개의 자연마을이 존재한다. 하례1리의 경우 자연마을은 12개의 반으로 나뉘어 있으며 상동은 1~5반, 하동은 6~12반에 해당한다. 상동 및 하동영농회장은 농사정보를 마을사람들에게 공유하는 역할을 한다. 제주의 다른 마을들은 영농회장이 마을의 의사결정구조에 들어오는 일이 적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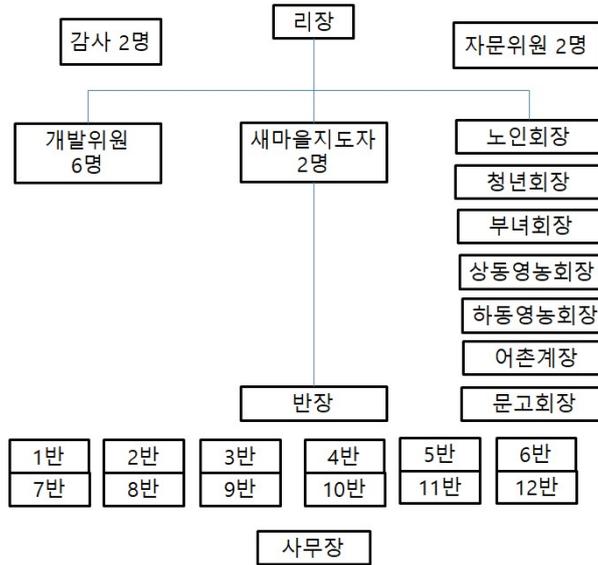
과거 제주의 생업구조를 살펴보면, 주로 밭농사를 지었기 때문에 축력으로 사용했던 소의 먹이가 필요하므로 마을공동목장이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 또한 바다와 접해있는 마을은 바다에서 다양한 먹을거리를 수확하면서 바다를 관리해 왔기 때문에 어촌계 역시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 따라서 마을의 생업구조 상 마을공동목장조합과 어촌계가 동시에 마을의 의사결정구조에 들어오는 것이 대다수이다.⁴⁾ 제주 마을에서 공동자원은 매우 중요한 생계의 수단이었기 때문에, 마을의 공동자원인 마을공동목장과 마을공동어장은 마을 내 의사결정구조에 들어오면서 현재까지 이어져 내려온 것이다.

2) 본 논문의 연구방법은 주로 문헌조사와 하례리 마을사람들의 인터뷰를 중심으로 진행하였다. 다만 하례리 마을조사와 관련한 인터뷰는 주로 하례1리를 중심으로 진행하였다. 생태관광마을을 추진할 당시 사무국장(현(주)생태관광 대표)을 시작으로 인터뷰를 하면서, 하례1리 이장님을 소개받고, 이어서 효돈천 트레킹, 에코파티, 하례리생태관광마을협의체 등 생태관광 관련 마을관계자를 소개받는 과정에서 주로 하례1리에 사는 사람들을 추천받았기 때문이다.

3) 2019년 8월 16일 하례1리 이장님 인터뷰.

4) 제주 마을의 의사결정구조에 관한 연구는 김자경(2019) 참조.

<그림 2> 하례1리의 마을 조직현황



출처 : 하례1리 마을회 내부자료.

특히 제주의 마을 지도를 보면 많은 마을들이 한라산을 중심으로 중산간 지대를 거쳐 해안까지 남북으로 길게 형성되어 있다. 밭농사와 어업을 동시에 영위하면서 마을의 생계를 책임지기에 무척 유리한 마을의 분할방식인 것이다. 이 덕분에 마을은 다양한 공동자원을 동시에 확보할 수 있었다. 하례리의 마을 지도를 보면 한라산에서 해안까지 길게 마을이 이어져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그림 1 참조).

그러나 하례1리의 경우 환금작물인 감귤이 도입되면서 하례1리 대부분의 세대는 감귤농사를 짓는다. 때문에 상동 및 하동 영농회가 마을의 의사결정구조에 들어온 것으로 유추된다. 한편 하례1리의 경우 마을공동목장조합은 분리되어 마을회에 들어오지 않고 있다. 어촌계는 마을의 의사결정구조에 들어왔다. 이와 같이 농촌마을의 조직구성을 보면, 마을의 생업구조에 따라 의사결정구조가 형성되고 있으며, 다른 제주 마을의 의사결정구조와 비교해보면 각 마을에 따라 특징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다음으로 마을의 임원 구성 구조를 살펴보면, 개발위원, 새마을지도자, 자생단체인 노인회장, 청년회장, 부녀회장, 상동 및 하동 영농회장, 어촌계장, 문고회장 그리고 자연마을의 반장이 있다. 이장은 마을총회를 소집하며 마을 전반에 대해 책임을 진다. 이장은 마을총회에서 선출하며 임기는 2년이다.⁵⁾ 개발위원회는 하례1리 운영의 실행기관이다. 개발위원 6명은 마을총회에서 선출하며, 노인회장, 부녀회장, 청년회장은 당연직 개발위원이다.

새마을지도자는 마을의 민원이나 마을회의록을 작성하는 총무역할을 한다. 새마을지도자는 남원읍 새마을지도자 협의회 소속으로 4~50여명으로 구성되어 있다. 새마을 지도자는 마을 조직에 들어오면서 마을의 총무 역할을 하면서, 남원읍의 사업도 함께 상의하면서 각

5) 현재 하례1리 이장님은 생태관광마을 사업을 유지하고 임기 2년을 마쳤으나, 사업의 연속문제로 연임되어 마을 내에서는 1년만 일하는 것으로 합의본 상황이다(2019년 8월 16일 하례1리 이장님 인터뷰).

마을 내 소통을 담당하는 역할을 하기도 한다. 새마을지도자도 총회에서 선출되는데, 청년회 활동을 하면서 일정 정도 인정을 받으면 청년회장이 되고, 이후 새마을지도자가 되는 과정을 거친다. 이후 어느 정도 경험이 누적되면 이장으로 선출되는 것이다. 하례1리의 주요 일꾼 내지는 임원은 이와 같이 단계적으로 마을의 일에 대한 경험을 쌓아나가면서 키워지고 있다.

한편 하례1리 마을에 의사결정구조에 들어간 독특한 직책이 또 하나 있다. 바로 문고회장이다. 문고는 하례1리새마을작은도서관을 지칭한다. 한라산 남쪽 최고의 도서관을 보유하고 싶다는 열정을 가지고 문고회장은 마을의 일에 열심히 참가하고 있다⁶⁾.

이와 같이 마을의 현황을 살펴 볼 때, 마을 내 의사결정구조를 우선적으로 파악하는 이유는 마을의 자치구조를 살펴보기 위함이다. 이장은 행정에서 임명하지만 실제로는 마을총회에서 직접 선출된다. 즉 이장에 대한 권위는 덕망을 얻어 선출된 풀뿌리 권력이며, 마을 내부 구성원으로부터 권력이 만들어지는 자치와 자율의 구조이기 때문이다. 물론 일제식민지 시대를 거치며 마을 외부의 식민지세력이 주었던 권력, 군사독재시대를 거치면서 중앙정부로부터 포섭된 구조일 수도 있다. 아직까지도 마을 내 강력한 의사결정권을 가지는 개발위원회나 새마을지도자의 존재가 그 흔적을 말한다. 그러나 마을에는 다양한 여러 조직들이 존재한다. 과거에는 다양한 ‘계’의 명칭으로 불렸을 조직, 즉 식민지 이전 시대부터 계속 유지되어 온 어촌계가 이에 해당한다.

이와 같이 어촌계나 개발위원회와 같은 신구의 다양한 조직들이 서로 충돌하지 않고 마을의 내부로 들어왔다. 이 다양한 조직들이 원활한 소통을 함으로써 마을 자치의 힘을 키우게 되는 것이다. 이 경우 외부에서 개발압력이 강하게 들어온다 하더라도 마을 내 소통을 통하여 회복력을 강하게 갖출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마을의 자산이자 공동자원을 기반으로 한 소통의 힘이야말로 가장 강력한 사회적 자본의 하나로 작동하게 될 것이다. 하례1리의 경우도 여러 자생단체 뿐만 아니라 시대의 변화에 따라 행정에 의해 만들어야 하는 개발위원회, 새마을지도자 등도 마을 내부로 들어왔다. 마을에서 결정해야 할 중요한 사업은 마을총회에서 안건으로 올라오고 총회의 승인을 거쳐 추진된다. 공동체성의 확인은 이와 같이 마을 내 의사결정구조를 통해 간접적으로 확인할 수 있다. 하례1리는 마을총회가 원활하게 이뤄지고 있으며, 하례1리의 공동체성도 비교적 강하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2. 효돈천 또는 내창, 생활 속의 공동자원

하례리에는 중요한 공동자원인 효돈천이 존재한다. 효돈천은 한라산 서남서벽과 남동쪽에 서 각각 발원한 하천줄기가 많은 지류를 모아 영천오름 부근에서 합류한 뒤 칩오름의 동쪽을 돌아 내려오다 예촌망(망오름)을 지나 ‘쇠소깍’에 이르러 바다로 나가는 형태의 하천이다 (강순석외, 2001. p15). 한라산에서 바다로 이어지는 하천만큼 한라산 남쪽(산남)지역의

6) 2016년 1월 19일자 한라일보 『<양기훈의 제주마을탐방 73>서귀포시 남원읍 하례1리』
<http://www.ihalla.com/read.php3?aid=1453129200527214289>

최대 하천이다.

효돈천은 하례리 마을지 『下禮마을-가마귀마루』에는 ‘효례천’으로 기록되어 있어, 하례리 사람들은 오래전부터 ‘효례천’으로 불려왔음을 알 수 있다(하례마을회, 1999, p23). 1936년 일제는 ‘조선하천령’을 통해 전국의 하천 길이와 명칭을 정했다. 효돈천은 이에 따르면 ‘제주도 서귀면 상호리 1467번지~바다’까지에 해당한다. 1962년 ‘조선하천령’은 폐지되고 ‘하천법’이 제정되었다. 1981년 ‘하천법’이 개정되면서 건설부장관의 권한 일부가 도지사나 지방국토관리청장에게 위임되었다(양동욱 외, 2016, p.143). 이후 1982년 제주도지사가 효돈천을 준용하천으로 고시하였고 공식적인 명칭이 되었다(강순석외, 2001. p25).

제주도내 대부분의 하천은 건천이듯 효돈천 역시 대부분의 구간에 물이 항상 흐르지 않는다. 따라서 하천 바닥으로 내려가 보면, 용암이 흘러 굳은 거대한 바위(조면암)가 여기 저기 펼쳐져 있거나 암벽등반이 가능할 정도의 큰 바위들이 하천가에 우뚝 서있다. 이러한 독특한 풍경은 마치 계곡을 연상시킨다. 이 계곡과 같은 건천은 “집중호우 시에 고지대인 상류에서 형성된 대량의 물을 하류인 바다로 급속하게 운반시켜 주는 배수로의 역할을 수행하는 것”이다(강순석 외, 2001. p159).

하례리 사람들은 효돈천을 통칭 ‘내창’이라고 한다. 내창은 제주어로 하천이라는 뜻이다. 비가 오면 효돈천에 갑자기 물이 불어나면서 급물살을 일으키며 바다 쪽으로 흘러나는데 이를 ‘내친다’ 또는 ‘내터진다’고 표현한다. 30여년 전만 해도 효돈천에 비가 와서 내가 터지면 15일 정도는 물이 항상 고여 있었다. 그러나 현재는 3일 정도 지나면 효돈천의 고인 물이 사라질 정도로 수량이 적어졌다. 아이들이 내창에서 놀다 보면 크고 작은 사고들이 존재하는데, 특히 내터질 때는 익사사고가 종종 있었다. 하례리에는 비가 내리지 않아도 한라산에 검은 구름이 낀 것을 보면 어른들이 내터진다고 경고하며 아이들을 귀가시키곤 했다.⁷⁾

효돈천의 물은 인근 마을의 중요한 식수원이었다. 효돈천 곳곳에 용천수가 나오는 물웅덩이가 있는데, ‘긴소’, ‘웃소’, ‘댁물’, ‘남내소’ 등은 효돈천 인근 마을사람들이 식수로 사용했던 곳이다. 현재 하례1리 이장(1953년생)은 초등학교 때 효돈천 내 ‘댁물’이라는 곳에 허벅을 지고 물을 길러 다닌 경험이 있었다고 회상했다. 특히 ‘남내소’는 지금도 연중 내내 물이 마르지 않는 매우 깊은 곳이다(양동욱 외, 2016, p.42, 강순석외, 2001. p35).

효돈천에 허벅을 지고 물을 길러 다녔던 당시, 식수로 이용되었던 곳은 깨끗하게 보존하기 위해 신성시하였다. 식수로 사용하는 물은 목욕이나 빨래를 금지했고, 이는 불문율이었다. 또한 제사를 지내거나 경조사가 있을 때는 많은 물이 필요하여 며칠 전부터 물을 저장해 놓는다. 그러나 갑자기 초상을 치러야 할 경우 급하게 많은 물이 필요했다. 이때는 마을사람들이 허벅에 물을 길러다 주었는데, 이러한 풍습은 ‘물부조’라고 한다(양동욱 외, 2016. p42-45).

한편 허벅을 이고 물을 길러 다니기에는 너무 힘들고 불편하여 마을사람들이 효돈천 내에 수도사업을 자발적으로 진행하기도 했다. 1927년 효돈천 내 돈내코에서 120여 미터를 거슬

7) 2019년 8월 16일 하례1리 이장님 인터뷰.

러 올라가면 취수장이 있었는데, 이곳에서 물을 사용했던 5개 마을이 협동하여 용수개발사업을 추진했었다. 당시 신호, 하효, 동상효, 서상효, 토평 등 5개 마을이 모여 상수도조합을 결성하였다. 한 가구당 소 한 마리 값 정도를 엄출하면서 공사비를 모았다. 1930년대 초 완공된 돈내코 취수장은 주민들의 자발적으로 만든 사업이었으며, 1960년대 초까지 사용되었다. 돈내코 취수장에서 각 마을로 물을 보내면 동네별로 설치된 물탱크에 저장되었다. 마을 사람들은 멀리까지 가지 않고서도 동네 안에 있는 물탱크의 물을 받아 바로 사용할 수 있었다. 이런 물 공급은 해방 후 1960년대 초까지 이루어졌다(강순석외, 2001. p86). 하례리에서는 1965년 12월 간이 상수도가 개통되었다. 13개소에 공중전(公衆栓)을 설치하여 이웃끼리 한 수도꼭지를 이용한 물을 사용하게 된 것이다(하례리마을회, 1999. p140).

효돈천은 식수 뿐만 아니라 생활에 필요한 모든 것을 사람들에게 제공하였다. 하례리 어르신들의 인터뷰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효돈천은 하례리 사람들의 삶의 터전이자 공동자원이었다.

강00(45년생), 황00(48년생)

“이 냇가가 우리에게 주는 것이 엄청나게 많지. 일반 생활권에서 옛날에는 음료, 목욕, 빨래, 그 다음 가축 물 먹이는 거. 그 다음에 이 주위에서 얻어지는 이런 딸감, 우리가 먹을 거리, 여러 가지 우리에게 상당한 도움을 많이 줬지”(양동욱 외, 2016. p10).

3. 삶의 변동, 단절된 공동자원 - 마을공동목장의 분리, 쇠소각의 방치

효돈천은 예로부터 하례리 마을 사람들의 삶의 터전이였다. 댁물과 오개물은 식수를 제공했으며, 허벅과 물부조 문화를 남겼다. 댁물 인근에서 빨래를 했으며, 빨래터는 동시에 마을의 이야기를 논하는 공론장이기도 했다. 아이들은 하루 종일 내창에서 놀면서 물놀이도 하고 목욕도 했다. 인적이 비교적 뜸한 곳은 연애장소도 되었다. (양동욱 외, 2016. p42-60). 그러나 집집마다 수도가 설치되고, 욕실이 정비되고, 세탁기가 들어오면서 효돈천은 일상생활과 조금씩 멀어지게 되었다.

공동자원은 생활과 밀접하게 이용되면서 다양한 문화를 창출했다. 그러나 공동자원의 이용과 필요가 없어지면서 그와 관련된 문화 역시 기억 속에 추억으로 남게 되었다. 그리고 상수도 개발에 따른 효돈천의 수량의 변화도 감지되고 있다.

강00(60년생)

“~근데 거기(예기소)가 물이 잘 안고이는 거 같고 그거를 왜 느끼면은 저 고살리 가면은 그 위에 가면 물 나오면 그 물통에서 물 맞으면서 놀아도 냈었거든? 그게 없어진게 어느 날엔가 지하수들 팠잖아, 물들이 다 그 줄로 가버렸는지 그 위에 나는 물은 안나버리더라고 그렇지 않으면 고살리 위에 가서는 참 닭도 삶아 먹고이, 그러면서 즐겁게 놀고 찬물에서 놀고 거기서 물도 맞고 그랬는데 그게 이 지하수가 개발되면서 그게 없어져 버렸

어”(양동욱 외, 2016. p29).

하례리는 제주의 여느 마을과 마찬가지로 농사를 지으면서 지금까지 생업을 이어나가고 있다. 특이한 점은 효돈천의 물을 이용하는 산업인 제지업, 석제업 등도 존재했었던 것이다. 효돈천 남내소 하류지점에 ‘한지내콰’이라는 지명이 이를 증명한다. 닥나무를 심어 종이를 만드는데, 작은 소는 세척장으로 이용하고 넓은 바위는 건조대가 되었다. 종이제조는 일제강점기 때 일본에서 대량 생산된 종이가 들어오면서 사양길에 접어들었다(강순석외, 2001. p37, 하례리마을회, 1999. p150).

문00(41년생)

“예전에는 닥나무가 내창에 많았는데, 거기서 실을 뽑아가지고 베를 만들었지”(양동욱 외, 2016. p13).

석제업은 묘비를 만드거나 기념비, 공적비 등을 만드는데 제주에 3~4곳이 존재했다. 그 중 한 곳이 하례리 걸서악 인근의 ‘소안밭’이다. 걸서악 서쪽 벽 냇가가 비석제조 장소였다. 제주에서는 드물게 존재했던 채석장이었다고 한다. 또한 효돈천의 바위들은 생활용구와 건축용 자재로 사용되기도 했다(강순석외, 2001. p44, 하례리마을회, 1999. p150).

한편 예전에는 주로 고구마, 콩, 참깨, 맥주맥 등 밭작물을 재배했었다. 그러나 본격적으로 감귤을 재배하면서 하례리를 시작으로 제주도 전체를 감귤산업으로 변화시켰다. 일제강점기 이전부터 하례리에서는 제사상에 올리거나 약재로 사용하기 위해 당유자나 하귤 등 재래종 귤을 한 두 그루 재배했었다. 하례리는 일본에 거주하는 친인척들에게 감귤나무 묘목을 받아서 시작한 경우가 많았다. 1956년 문00와 양00이 하례리에 감귤나무를 심었고, 1970년대에 들어서는 거의 모든 집에 감귤나무를 심었다. 1980년대에 들어서는 해발 200미터 이하의 모든 밭은 감귤원으로 조성된 것이다. 하례리는 감귤로 인해 전국에서도 상당히 높은 농업소득을 올리게 되었다(양동욱 외, 2016, p.102-111, 하례리마을회, 1999. p151-157). 한편 제주도 전역에 감귤이 재배되고 있지만, 감귤의 북방한계선은 서귀포시 지역이다. 특히 하례리는 제주에서도 겨울철에도 눈이 내리지 않고 포근한 지역이다. 감귤이 확산된 이유 중의 하나는 감귤생육환경이 하례리의 자연환경에 적합한 부분이 크다고 여겨진다.

소를 이용하여 밭농사를 지었던 농업이 환금작물인 감귤로 대부분 대체되면서 마을이 점차 변화하기 시작하였다. 소를 이용하던 농사문화가 사라지고 경운기가 사용되었다. 마을공동목장도 소가 사라지는 만큼 중요도는 하락하였다. 밭 돌담 울타리에 심어졌던 동백나무 등이 베어지고 감귤나무를 보호하기 위해 방풍림인 삼나무가 심어졌다. 삼나무가 빠르게 자라면서 멀리 바닷가가 보였던 시야가 가려지게 되었다. 온 마을에 같은 감귤나무가 심어지자 병충해 확산도 한 순간이 되었다. 농약에 대한 사용량이 증가하였다. 이로 인해 반딧불이가 사라졌다. 마을의 풍경과 자연환경이 바뀌게 된 것이다(양동욱 외, 1999. p110).

허00(56년생)

“~개구리도 개체수가 상당히 적어지면서 그런 소리가 많이 안 들린 거. 어쨌든 그건 이제 이디가 이제 감골과수원 지대다 보니까 농약을 많이 하면서 빗물에 농약이 하천으로 이제…쓸러 그쪽으로 내려가면서 아마 그런 그…자연적으로 뭐로 해서 개구리나 모든 게에…그런 그 철새. 이런 부분도 개체수가 줄어들어가지고 그만큼 이제…자연에서 나는 소리가 적어지지 않았는가. 하고. 또, 우리 지역엔 예전에는 반딧불이 상당히 많이 났었는데 요즘에는 반딧불이 보기가 거의 극히 어려운 쪽으로 된 부분이고. 계, 여기는 건천이지만은 건천 그 주변이 좀 습한 쪽에가 상당히 많아가지고 예전엔 반딧불이 상당히 많았는데 아마 그런 그 농약의 사용으로 해가지고 그런 부분이 상당히 이제…줄어들지 않았는가. 난 그렇게 생각해”(양동욱 외, 2016. p25).

또한 노동력의 동원 방식이 바뀌게 되었다. 밭작물 중심이었을 때는 품앗이와 비슷한 노동력 교환인 수눌음이 번성하였다. 그러나 감골의 생산면적이 증가하면서 수확량이 많아지고 노동력이 필요한 시기가 대부분의 마을에 겹치면서 수눌음은 어려워지고, ‘놉’이라는 임금노동의 형태가 증가하였다. 점차 ‘놉’을 구하는 것도 어려워지자 현재는 주로 용역업체를 이용하기도 한다(양동욱 외, 2016, p111). 농업노동력은 품앗이에서 임금노동으로 완전히 바뀌었다.

하례리의 농업생산구조가 감골로 바뀌면서 농업소득이 증가하고 생활수준이 좋아졌다. 이와 반면에 다양한 관계의 변화가 크게 감지되고 있다. 상수도 보급 등으로 효돈천과 생활이 단절되었다면 감골산업으로 인해 마을사람들이 수눌었던 문화가 사라지고 마을사람들 개개 인간의 단절이 시작되었던 것이다.

효돈천과 함께 했던 마을사람들의 생계와 생활은 감골도입으로 인해 완전히 변했다. 농업구조가 생계경제에서 시장경제로 이행하면서 생태계, 마을경관, 인간 관계가 변화한 것이다. 변화의 양상은 단절로 설명된다. 효돈천과 인간의 관계 단절, 인간과 인간의 관계 단절은 어떠한 결과를 초래했는가. 폴라니 식으로 정리하면, 화폐경제의 상징은 감골농업으로 하례리 마을 속으로 완전히 침투한 것이다. 이에 따라 과거 호혜적 경제의 영역이었던 농업은 상호부조, 품앗이 등의 공동노동, 교환노동이 사라졌고, 임노동의 고용으로 변화하였다. 시장경제체제가 농촌 마을 깊숙이 파고 들어오자 효돈천을 이용한 공동자원은 사라졌다. 농가들의 교류는 사라지고 농업경영인으로서 개별적으로 의사결정을 하고 있다. 감골이 주요 수입원이 되면서 작목반의 역할과 위상은 커졌으며, 하례1리에는 현재 4개의 작목반이 있다. 그러나 작목반은 위미농협을 중심으로 조직되었고, 이는 경제의 효율성을 위해 조직된 것이다. 과거처럼 협동노동을 조직하는 것이 아니라 농자재의 공동구매, 감골의 공동판매 등을 통해 유통의 효율성, 농업생산비 등을 절감하기 위한 조직인 것이다.

생업과 생활의 변화로 효돈천과 하례리 마을사람들의 관계가 약화되면서 효돈천 하류에 쓰레기 투기 문제가 나타나기도 했다(강순석외, 2001. p23).

Ⅲ. 효돈천, 다시 공동자원이 되다

1. 마을의 과제, 생태관광 도입 배경

하례리 마을의 주요 경제산업은 농업, 그 중에서도 감귤농업이 중심이다. 그러나 남원읍 내에서 보면 상대적으로 면적은 작은 지역이어서, 주로 신흥이나 중문 쪽의 다른 마을에서 감귤 하우스를 경영하는 사람들도 많다. 하례리의 경우 마을 재산도 그리 많지 않은 편이다. 마을공동목장은 마을회의 것이 아니라 마을에서 독립한 마을목장조합의 것으로 150여 명으로 구성되었다. 최근 들어 관광지로 유명세를 타고 있는 쇠소각의 경우 하례리와 하효동의 생활영역이기는 하나 주로 하효동 사람들이 주로 이용하고 있다. 그래도 마을 구성원으로서 정체성을 유지하고자 하는 마음이 강하여, 남원읍 체육대회를 나가보면 하례리는 3~40명 정도의 마을 청년이 참가하고 있다.

이러한 하례리 마을은 여느 농어촌 마을처럼 고령화가 진전되고 있으며, 주변의 농촌마을보다 토지도 적은 편이다. 그러나 하례리의 경우 겨울철에도 눈이 오지 않는 포근한 날씨와 더불어 감귤의 재배기술이 뛰어나 감귤수익이 제주도내에서도 매우 좋은 지역이다. 때문에 실제로는 청년의 비중이 다른 마을보다 높은 편이다. 하례리는 1차산업 중심의 마을이지만 수익이 좋은 편이기 때문이라 판단된다. 하례리 마을의 과제는 마을 소득을 높이는 경제활성화에 목적을 두고 있지 않다. 오히려 하례리의 과제는 서귀포 지역 내에서 마을의 지명도가 낮다는데 있다.⁸⁾ 또한 하례리 마을 사람들은 효돈천에 대해 삶과 생계에서 단절되었지만, 추억의 단절은 없으며, 하례리 마을 사람들은 다른 마을을 견학하면서 자신의 마을과 효돈천에 대해 자랑스러워 했다.

한편 효돈천은 1965년 천연보호지역(천연기념물 182호, 한라산 천연보호구역)으로 지정되었으며, 2002년에는 유네스코 생물권보전지역의 핵심지역으로 선정되었다.⁹⁾ 2014년 12월에는 효돈천과 하례마을이 환경부 생태관광마을로 지정되었다.

생태마을로 지정된 계기는 생물권보전지역 사무국의 제안으로 시작되었다. 하례리는 2002년에 생물권보전지역은 지정되었지만, 마을에는 어떠한 혜택이나 변화가 없었기 때문이다. 생태관광마을을 신청한 곳은 서귀포시 지역의 하례리와 제주시 지역의 저지리가 있다. 하례리의 경우 1리와 2리가 함께 생태마을협의회를 구성하여 추진하고 있다.¹⁰⁾

마을 사업은 본래 전임 이장의 사업을 후임 이장이 연속적으로 받지 않으며 사업의 진행이 어렵게 된다. 그리고 마을의 의사결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개발위원회를 설득하여 동의를 구하는 것도 어려운 일이다. 특히 생태마을 사업에 대한 내용을 충분히 숙지하지 않은 상태에서 신청했을 경우, 이후 마을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문제들이

8) 2019년 7월 22일 ㈜생태관광 윤대표 인터뷰, 2019년 8월 16일 하례1리 이장님 인터뷰에 의함.

9) 제주도 생물권보전지역 홈페이지 <http://www.jeju.go.kr/jibr/index.htm> 참조.

10) 하례리의 경우 2리 이장님이 1리 이장님을 설득하여 함께 신청했으나, 현재는 주로 1리를 중심으로 추진하고 있는 상황이다. 하례2리의 경우 생태마을 추진에 대한 반발이 심했는데 효돈천이 천연보호구역으로 지정되면서 재산권 행사가 상당히 저해되었기 때문에, 생태관광마을을 추진하게 되면 마찬가지로 우려가 반복될 것이라고 하는 생각이 강했기 때문이라고 추측된다(2019년 8월 16일 ㈜생태관광 대표 윤00 인터뷰).

나타나기 마련이다. 하례리의 경우 생태마을을 신청할 당시 사업의 내용을 제대로 숙지하지 않은 상태였다. 따라서 2014년 4월에는 주민역량강화 프로그램 먼저 시작하였다. 우선 하례1리와 2리의 주민을 중심으로 협의회를 구성하였으며, 서귀포시 녹색환경과 담당 공무원도 함께 협의회에 참석하고 있다. 분기별로 회의를 하는데 현재까지 이어지고 있다. 이 협의회에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했던 총무는 현재 (주)생태관광의 대표 윤00이다. 윤대표는 2014~2016년까지 협의체 총무를 맡아 협의회를 이끌어왔는데, 마을 외부인이자 생태관광의 전문가로서 참가하였다. 현재는 자원봉사를 하면서 마을과 지속적인 관계를 이어나가고 있다. 하례리에서 (주)생태관광은 지역 코디네이터 역할을 했었던 것이다.

윤대표는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하례리의 특징을 ‘청년 비중 높음, 효돈천의 존재, 마을 지명도의 낮음’이라는 요소로 파악하여 마을 활동의 주요 파트너를 청년회로 삼아, 이들을 중심으로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하였다. 그것이 효돈천 트레킹과 고살리 숲 해설이다.

이후 하례리 마을은 농림축산식품부가 주최하는 2017년 제4회 행복마을만들기 컨테스트에서 경관·환경부문에서 수상을 하였다. 수상의 이유는 마을 프로그램 자체가 청년을 중심으로 전개되었기 때문이라고 판단하며, 앞으로 마을의 고령자를 중심으로 한 프로그램 개발이 과제이다.

2. 생태관광마을 추진 경과

하례리 마을은 생태관광마을 이전에 다양한 마을 사업을 추진해왔다. 영어마을 유치, 태풍센터 유치, 전지훈련장 유치 등 여러 가지 시도가 있었는데 모두 실패하였다(2019년 8월 16일 하례1리 이장님 인터뷰). 마을 사람들의 찬반 양론이 나뉘기도 하였으나 마을 사업에 있어 외부의 시설물 유치라는 점에서 마을 사람들이 함께 할 수 있는 비전은 존재하지 않았던 점이 실패의 이유라 판단된다. 따라서 하례1리는 생태관광 마을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표 2>과 같이 마을의 중장기 발전방향을 수립하여 마을 총회에서 인준을 받았다. 마을 총회를 거쳐 생태관광 마을 비전을 수립했음에도 불구하고, 생태관광의 특성 상 조용한 마을 안까지 관광객을 끌어들이는 결과를 맞이하였다. 마을 안길에 관광객이 증가하자 쓰레기가 증가하였고, 이에 생태관광마을 사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사람들과 그렇지 않은 사람들로 나뉘었다.

<표 2> 하례리 마을 중장기 발전방향

비전	자연과 문화와 사람이 느리게 어우르는 마을 생태관광마을 하례1리		
목표	효돈천 생태가치 확산	주민공공서비스 강화	주민생업의 안정화
전략 계획	하천의 원시생명력 회복 과 체험 ↓ ·효돈천 트레킹 코스개발 ·효돈천 스토리(전설)찾기 ·효돈천 환경모니터링 ·생태계 복원활동	주민공동체 활성화 및 복지증진 ↓ ·주민이 행복한 축제운영 ·주민여가문화아카이브 구축 ·주민역량강화 교육 ·사회적협동조합 운영 ·생태해설사 주민교육	새로운 농업소득 개발 ↓ ·생태관광지 효돈천과 하 례리 감귤브랜드 개발 ·특산물 판매장 운영 ·감귤활용상품 발굴 ·마을공방을 이용한 기념 품 제작

자료: 하례1리 마을회 자료.

마을 사람들의 인식이 달라지고 있다는 것을 느끼게 된 계기는 행복마을만들기 컨테스트를 준비했을 때이다. 마을 주민 50~60명이 3개월동안 함께 연습해서 제주도 예선에서 우승한 후 전국대회에 나가 동상을 받았다. 이 준비 과정 속에서 마을 주민들이 단합해 나가고 있다는 것을 실감했으며, 생태관광에 대한 인식도 점차 변화해 나가고 있음을 실감한다. 생태관광이 마을 주민들에게 소득이 되지 않지만 보람이 되는 것이다. 이 결과 제주시 선흘리에 생태관광마을센터가 있는데, 마을 총회에서 서귀포시에도 생태관광지원센터를 유치하기로 합의했고, 하례1리에 유치한 것이다.¹¹⁾ 또한 생태관광마을 지정을 계기로 2018년에는 농촌체험휴양마을에 선정되었다. 2019년 예비마을이 되고 2020년 본격적으로 이 사업도 시작된다. 감자체험농장, 농촌밥상 등의 프로그램을 준비 중이다.

현재 하례리생태관광마을협의체는 24명으로 구성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 가장 역점을 두고 있는 것은 ‘사람’을 기르는 일이다. 트레킹해설사(10명), 환경교사(9명), 감귤점빵팀(5명) 등 인재양성을 하고 있는데 생태관광마을이 지정되면서 받고 있는 예산이 끊겨도 지속적으로 운영해 나갈 수 있게 준비 중이다.

효돈천 내창트레킹의 경우 관광객 5명당 1명의 해설사가 들어간다. 이들은 응급구조 등 안전교육을 매년 실시하고 있다. 환경교사는 마을의 식생조사 등 다양한 활동을 하며 하례초등학교에서 환경교육을 하고 있다. 감귤점빵은 원래 부녀회 사업인데 부녀회 회원들이 너무 바빠 부녀회 회원 중 5명으로 협동조합을 설립하였고, 현재는 사회적기업으로 인증받았다. 감귤점빵에서는 감귤을 이용하고 막걸리로 발효시키는 상워빵을 만든다. 하례리에는 떡

11) 현재 생태관광지원센터는 걸서악 부근의 마을 땅에 국비 8억, 도비 8억을 들여 만들고 있다.

집이 없어서 제사상에는 인근 마을에 가서 떡을 사오는데, 감글점빵이 생기면서 감글 상웨빵은 실제 마을사람들의 제사상에 올라가기도 한다. 또한 남원읍내 노인회 경로잔치 등에 가서 나눔도 하면서 홍보하고 있다.

한편 주민참여예산을 신청하여 무단투기를 방지하기 위해 CCTV를 설치하였다. 또한 농협에서 지원받아 트럭을 가져와 주민환경감시단을 운영하고 있다. 효돈천 내 쓰레기 무단투기 방지 효과를 보고 있다. 매달 마지막 주 일요일에 내창 청소의 날을 정해 활동하고 있다. 상류에서 흘러나온 쓰레기를 청소하고 있다.

3. 전환의 시작, 효돈천과 하례리 마을사람들의 관계 맺기

생태관광마을을 추진하면서 마을만들기 사업에 대한 느낌은 많이 달라졌다. 특히 ‘마을의 자원을 활용한’ 마을만들기라는 의미는 효돈천과 하례리 마을사람들의 관계가 새롭게 구축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것은 효돈천이 하례리 사람들에게 공동자원으로 인식하고 있는 것을 말하는 것이다.

하례리 마을만들기는 2010년을 기준으로 그 전과 후가 다른 느낌이다. 이전에는 마을길 정비와 같이 하드웨어를 구축하기 위한 마을만들기 사업이었다면, 이후는 마을의 자원을 활용한 마을만들기 사업이 추진되었다. 2014년 결서약 옛숲 보호사업이 그러했다. 이후 생태관광마을, 농촌휴양체험마을은 하드웨어 사업이 아니다.(2019년 8월 21일 생태마을관광협의회 사무국장 인터뷰)

생태관광마을을 추진하면서 하례리 사람들은 마을의 자원에 대해 조사를 하였고 『하례리 내창소리』라는 책으로 나왔다. 이 책은 1장 큰내에 대한 향수, 2장 하례마을 생명스토리, 3장 효돈천(효례천) 역사와 자연해설로 구성되었다. 장의 구성에서도 확인할 수 있듯이 효돈천을 중심으로 기술되어 있다. 특히 하례리 마을의 청년들이 마을 어른들을 대상으로 효돈천의 기억을 정리한 부분이 인상적이다. 이를 통해 삶과 생계와는 단절되었던 효돈천이 다시 추억을 통해 현재의 삶과 새로운 관계를 맺기 시작한 것이다. 효돈천은 생태관광을 매개로 다시 마을의 공동자원으로 만들어지고 있는 것이다. <그림 3>은 하례리 생태관광지도이다. 효돈천 트레킹은 평소에 경험하기 어려운 체험코스이다. 트레킹 코스를 따라 가다 보면 저마다 사연을 간직한 긴소, 웃소, 택물, 남내소 등 크고 작은 소(沼)들을 만날 수 있다.

링하고, 수업 이후 함께 평가회도 갖는다. 모두 감귤농업을 병행하고 있는 지라 각 자의 사정을 고려해 시간을 만들고 리사무소에서 함께 수업 준비한다. 이런 과정을 통해 환경교사들이 서로를 이해하게 되고 존중하고 함께 하고 있다는 연대감이 형성된다.”(한라일보, 2018년 3월 29일자)

그리고 마을사람들에 대한 호칭변화는 새로운 지속가능성의 희망을 보여주고 있다. 이들은 단순하게 마을 일을 위해 자원봉사하는 것이 아니다. 마을에서 살아가면서 마을 일을 하는 것에 대한 의미는 생활을 영위할 만큼의 벌이를 뜻하기도 한다. 이들이 감귤 이외의 생산을 담당하는 것이다.

“하례1리의 지속가능성은 ‘사람’에게 있다. 마을에 봉사를 하는 사람을 말하는 것이 아니다. 마을에서 살아가면서 마을 일을 하는 사람이다. 해설사가 그러하고 환경교사가 그러하다. 무료봉사가 아니라 월급을 받으면서 마을 일을 하는 사람을 키우는 것이 하례1리의 지속가능성이라 생각한다”(2019년 8월 21일 생태마을관광협의회 사무국장 인터뷰).

하례리의 경우 효돈천과 함께 했던 생활 즉 하천과 마을사람들의 관계를 다시 연결시키는 과제를 풀 수 있는 단초를 찾아낸 것이다. 효돈천을 이용한 생태관광은 다양한 행사를 운영하기 시작하였다. 2016년부터 시작한 ‘에코파티’와 2014년부터 시작한 ‘내창 끝에 뭐 이싱고!’ 등이 대표적이다. 마을 주민들이 주도적으로 참여하여 준비를 하고 있으며 특히 제주도민의 참여를 적극적으로 유도하는 모습이 보였다.

에코파티는 제주관광공사와 하례리생태관광마을협의회가 공동으로 주관하는 행사로 마을 단위로 관광상품을 준비하고 시행해보는데 상당한 역할을 했다. 현재는 제주의 12개 마을이 참가를 한다. 웰컴 티파티, 메인 행사-트레킹(하천길 코스, 고살리숲길 코스), 바룻잡이(소라 채취 체험) 등, 지역주민 공연, 로컬푸드 시식의 순 등으로 마을의 사정에 맞추어 다양하게 진행되고 있다. 에코투어는 하례마을의 연례행사가 되었다. 에코투어에 참가했던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었던 감귤빵은 ‘하례점빵’이라는 마을협동조합으로 탄생되었다. 마을의 방앗간이 사라져 다른 동네에 가서 제사상에 올릴 떡이나 빵을 사왔으나 이제는 마을에서 만든 감귤빵을 제사상에 올릴 수 있게 되었다. 하례점빵도 이제는 마을의 공동자원이 되었다. 에코파티에 제주도민의 참가가 높아지면서 하례리 생태관광에 대한 인지도가 높아지고 있으며, 하례리 마을에 대한 지명도 역시 높아지고 있다.

하례리의 생태관광마을 사업은 소득 사업이 아니라 마을공동체 사업이 되었고, 이는 효돈천과 마을의 관계, 마을 사람들간의 관계가 변화하면서 나타난 결과라 할 수 있다. 또한 하례리 마을만들기 사업은 바로 마을공동체 활성화 사업으로 바로 등치시키는 것이 아니라, 마을을 운영하는 방식을 전환했다는 점에 주목해야 할 것이다. 감귤로 인해 소득이 좋은 마을에서 기존의 방식대로 감귤을 중심으로 마을 운영을 하는 것이 아니라, 효돈천을 재인식하고 생태마을을 비전으로 마을을 운영한 것이다. 즉 마을살림의 생태전환이라 평가할 수

있다. (주)생태관광은 효돈천 트레킹을 통해서, 에코투어 프로그램을 상품으로 만들지 않고, 효돈천을 하례리 마을 사람들 모두의 것, 공동자원으로 만들어냈다. 이것이 공동자원의 입장에서 본 생태관광의 특징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마을공동체를 활성화하기 위한 생태관광은 주민이 효돈천의 가치와 효용을 인식하는 데 있다. '가까이 하면 알게 되고 알게 되면 사랑하게 된다'고 했다. 효돈천의 가치를 알고 사랑하게 하는 일, 사랑하는 대상이 있는 마을을 사랑하게 되는 것은 당연지사이다.

최근에 주민들이 마을을 사랑할 수밖에 없는 이유를 찾고, 함께 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고, 함께 책임지는 가치 있는 일련의 활동을 통해 자연스럽게 마을 공동체는 활성화 될 것이다.”(한라일보, 2018년 3월 29일자)

한편 또 하나의 작은 변화가 감지되고 있다. 효돈천 트레킹 프로그램 이전에는 그다지 마을 내 교류가 없었다. 대신에 경제공동체인 감귤작목반을 활성화되어 있다. 하지만 감귤작목반은 엄격한 규칙에 따라 운영되고 있으며, 비용 절감을 위한 농자재의 공동구매, 감귤의 공동판매등의 활동을 하고 있지만 농업기술의 교류, 감귤수확의 노동 품앗이 등의 교류는 거의 없다. 경제사업은 철저하게 감귤을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생태관광을 통해 시골살이를 하면서 마을사람들이 새로운 즐거움을 찾았다는 것이다. 또한 마을 내 친교도 강화되고 있다. 마을 구성원의 소속감이 강화되면서 서로 협동이 시작되었다.

“집 안 이야기도 하고, 농법 같은 것도 공유하는 거지요. 심지어는 작년에 태풍 때 마을에 한 분이 하우스가 무너진 거예요. 근데 그때 다 모여서, 하우스 복원을 했어요. 이렇게 공동체가 회복되는 일도 생기는 거예요”(2017년 5월 29일 (주)생태관광 대표 윤00 인터뷰).

임노동이 진전되면서 서로 함께 무엇을 한다는 경험이 사라졌으나, 다시 생업을 서로 돌보기 시작한 것이다. 효돈천 트레킹을 계기로 무엇을 함께 한다는 경험을 만들게 되었다. 이제 효돈천은 다시 하례리 마을 사람들의 공동자원이 되었다. 결국 생태관광도 삶의 터를 가꾸어 나가는 도구이다. 삶의 터를 마을사람들이 함께 만들어나가는 경험은 회복력을 가지는 큰 힘으로 작동할 것이다.

IV. 결론

마을은 변화하고 있다. 자연과 마을의 관계, 사람과 사람의 관계 등 모두 유동적으로 변하고 있다. 그 변화의 방향이 어디로 향하고 있는가? 하례1리 사람들은 생태마을의 비전을 가지고 방향을 조정하고 있는 과정이다. 그 과정에서 효돈천은 과거부터 지금까지 변함없이 존재해 왔으나, 효돈천과 함께 했던 기억을 소환하면서 마을사람들과 다시금 관계를 맺기 시작하였다. 효돈천은 생태관광을 매개로 다시 공동자원이 되었다. 잊었던 기억이 되살아나 다시 생활 속에서 함께 하례리 사람들과 효돈천이 호흡을 한다는 것은 다름 아닌 관계 맺음의 결과이다.

생태관광은 마을을 기반으로 한 일종의 생산 프로그램이나 지역환경 보전의 의미가 강하다. 또한 마을공동체를 강화하기 위해 생태관광을 도입한 것이 아니라 생태관광의 결과 마을공동체가 강화된 것이다.(2019년 8월 16일 ㈜생태관광 대표 윤00 인터뷰).

공동자원을 중심으로 마을을 운영한다는 것 다시 말하면 마을살림을 전환하다는 의미는 경제적인 것을 중심으로 마을을 운영하는 것이 아니다. 공동자원을 관리하고 이용하기 위한 민주적인 의사결정구조의 확립, 상호부조의 연결망 형성, 이러한 것을 토대로 마을사람들의 삶의 질 개선과 행복한 삶을 추구하는 것이다.

마을살림에는 삶의 윤택한 토대마련이 중요하다. 그래서 공동자원은 경제적 측면에서 유용하다. 하지만 공동자원은 경제적으로만 활용한다면 결국 관광상품화에 불과하다. 공동자원을 이용하면서 사회적가치를 창출하는 것이 중요하다. 마을 의사결정의 민주화, 사회적 안전망 구축은 결국 사회적 자본을 만들어가는 것이다. 공동자원을 만들어 운영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공동자원론의 입장에서 마을만들기는 마을살림이자 마을사람들의 행복추구인 것이다. 하례리의 사례는 공동자원론에서 볼 때 마을살림의 생태전환을 꾀하는 작은 사례 중 하나이다. 한편 하례리에는 다른 지역과 달리 대규모의 개발사업이 예고되어 있지는 않지만 예촌망 훼손¹²⁾과 같은 문제는 여전히 과제로 남아 있다. 제주의 경우 외부의 개발압력이 발생했을 때 마을공동체는 찬반의 의견이 나뉘어 공동체가 분열되는 마을이 많다. 따라서 개발압력과 같은 큰 외부충격이 왔을 때 하례1리는 회복력을 얼마나 갖출 수 있는가를 위해 고민을 시작해야 하는 시점이기도 하다. 그러나 효돈천의 경험으로 공동자원을 한 번 만들어 보고, 그 속에서 삶의 네트워크를 안전하게 갖추어 나간다면 어떠한 외부충격이 와도 이겨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지역에 어떤 문제가 발생했을 때 나타나는 마을의 대응력은 공동자원으로 마을을 살림하는 경험의 축적이 그 바탕이 될 것이다. 공동자원론의 시각에서 바라본 마을 살림의 핵심은 여기에 있는 것이다.

12) 제주환경일보 2019년 3월 18일자, 「예촌망은 절대보전지역, G그룹은 왜 불법 개발하나」
<http://www.newsje.com/news/articleView.html?idxno=121467>

<참고문헌>

양동욱·윤순희·정희중·전용문·김명준, 하례리 내창소리, 하례리생태관광마을협의체, 2016.
(비매품)

하례리마을회, 下禮마을-가마귀믈루, 1998.

강순석·김찬수·김완병·정세호·강만생·좌혜경·강문규·강시영, 제주생명의 원류/ 하천과 계곡
② 효돈천, 한라일보사, 2001.

김자경, 공동자원을 둘러싼 마을의 의사결정구조와 공동관리 : 제주 행원리 사례를 중심으로,
ECO, 23(1), 2019. pp35-74.

<미디어 자료>

한라일보, 2018년 3월 29일자 『풍요의 영등신과 ‘함께’의 가치』
<http://www.ihalla.com/read.php3?aid=1522249200590503099>

한라일보, 2016년 1월 19일자 『<양기훈의 제주마을탐방 73>서귀포시 남원읍 하례1리』
<http://www.ihalla.com/read.php3?aid=1453129200527214289>

제주환경일보, 2019년 3월 18일자 「예촌망은 절대보전지역, G그룹은 왜 불법 개발하나」
<http://www.newsje.com/news/articleView.html?idxno=121467>